

열사병 예방 3대(물, 그늘, 휴식) 기본수칙 이행가이드

1 폭염이란?

-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°C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.

- ☞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

폭염주의보 : 최고기온이 33°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폭염경보 : 최고기온이 35°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-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, 열탈진,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

- ☞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, 발열, 구토, 근육경련, 발열 등이 있습니다.

2 물, 그늘, 휴식!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.

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•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.	
그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▪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•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.•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• 의자나 둋자리,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.• 소음·낙하물,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	
휴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☞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(33°C)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, 폭염경보(35°C)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.•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. (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☞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. (기상청 홈페이지(www.kma.go.kr)에서 날씨누리>생활과산업>생활기상정보>)•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	

3 작업장 온습도를 수시로 확인하세요.

- 기상청 폭염정보를 활용하세요. 인터넷(www.kma.go.kr)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(날씨나라)을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폭염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
- 온습도는 작업 장소별,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열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

기상청에서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수준을 지수화한 '더위체감지수'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더위체감지수를 통해서도 폭염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

분류등급	보통	높음	매우높음	위험
더위체감 지수	21°C 이상 25°C 미만	25°C 이상 28°C 미만	28°C 이상 30°C 미만	31°C 이상

※ 더위체감지수는 온도, 습도, 풍속 등을 고려한 지수이며, 단순 기온이 아님에 유의

- * 기상청 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▶ 생활과 산업 ▶ 생활기상정보 ▶ 더위체감지수 (5~9월 서비스, 매일 6시, 18시 제공)
- *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(<https://lifesms.kma.go.kr>)에 가입하면 기상정보를 편리하게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4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.

■ 발생 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.

-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, 힘없음, 어지러움, 두통, 빠른 심장박동, 구역,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.

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.

-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.
☞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.
-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.
-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.
-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.
-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 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.



고용노동부

하절기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매년 하절기(6월~8월)에 급격한 기온상승 특히, 7월 짱마절 이후 강우가 잦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**완기가 불충분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**

📍 최근 하절기 질식재해 사례

- 2015. 7월 고체발효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및 청소작업 중 **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로 사망**
- 2014. 7월 물관리센터 공장에 출입한 탈취제 납품업체 대표가 슬리지 탈수저장조 현장을 확인하던 중 내부에서 **누출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로 사망**
- 2014. 6월 아주중말처리장에서 아정업체 근로자 2명이 배수펌프 교체 작업 중 **황화수소에 의한 질식 사고 1명 사망, 1명 부상**



📍 질식재해의 발생원인

1. 증사근로자(수리, 교체, 점검 직영 및 아정 근로자)에 대한 **위험정보 전달 미실시**
2. 기본적인 **사전 안전조치 미실시 및 안전수칙 미이행**
 - ▲ 밀폐공간 미평가 ▲ 출입금지 미표시 ▲ 가스농도 미측정
 - ▲ 작업 전 · 중 환기 미 실시 ▲ 송기마스크 등 적정보호구 미착용
3. 사업주 및 원청업체가 작업자(원 · 아정 작업자)의 상시 작업상황을 **감시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감시체계 미구축**

📍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

1. 작업 전 안전조치 및 종사 근로자 **안전보건교육 실시**
 - ▲ 작업위험 요소 인지 ▲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▲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등
2. 작업하는 공간의 면적과 깊이를 고려하여 **출입 전 산소 · 유해가스농도 측정**
 - ▲ 산소 18%이상 23.5%미만 ▲ 황화수소 10ppm미만 ▲ 가연성가스 10%미만
 - ▲ 이산화탄소 1.5%미만 ▲ 일산화탄소 30ppm미만
3. 충분한 환기를 시킨 후 출입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 **환기실시**
4. **감시인 배치**, 작업자와 연락체계 구축, 출입인원 점검
 - ▲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
5. 위급한 근로자 구출시 **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필히 착용**

📍 3-3-3 질식재해예방 안전수칙 “꼭 지킵시다”

- (첫째 3) 사업주, 협력업체, 근로자 3자간 질식위험정보 공유 및 안전보건기준 준수
- (둘째 3) 밀폐공간 확인, 출입금지 표시, 출입어가제 실시
- (셋째 3)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, 지속적 환기,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필히 착용

<덧붙임2>

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

유형	발생원인	주요증상 및 소견	응급조치
열경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도한 염분손실 ○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육경련(사지근, 복근, 배근, 수지굴근 등) ※ 30초 또는 2~3분 동안 지속 ○ 체온은 정상(36.5°C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0.1% 식염수 공급 ○ 경련발생 근육 마사지
열탈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온작업시 체내수분 및 염분손실 ○ 고온작업을 떠나 2~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이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로감, 현기증, 식욕감퇴, 구역, 구토, 근육경련, 실신 등 ○ 체온 38°C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 ○ 0.1% 식염수 공급 ○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
열사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온조절 장해 ○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기증, 오심, 구토,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, 하탈, 혼수상태, 혀소리 등 ○ 체온 40°C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흥뻑 적심 ○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줌 ○ 의식에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
열허탈증(열피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열환경 폭로로 인한 혈관 장해(저혈압, 뇌 산소 부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두통, 현기증, 급성 신체적 피로감, 실신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늘한 장소로 옮기 후 적절한 휴식 ○ 물과 염분 섭취
열발진(땀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되는 땀샘의 염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홍반성 피부 ○ 붉은 구진 발생 ○ 수포, 흉륜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 ○ 피부를 청결히 함